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0
AUGUST 14 2020

발간년월 2020년 8월 14일 (통권 제14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노바텍, 북극 항로를 이용 일본에 첫 야말 LNG 운송
- 톱스크 조선소, 북극자원개발 지원 대규모 바지선 진수
- 사할린~쿠릴 열도 운항 선박 2호 완공 임박
- 러시아 라간, 연방계획으로 신항만 건설추진
- 카작 항만, 올해 상반기에 300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

주요 통계

-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 노바텍, 북극항로를 이용 일본에 첫 야말 LNG 운송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은 야말 프로젝트로 생산된 LNG를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일본으로 운송함

- 러시아 에너지 기업 노바텍은 ‘야말 LNG’ 프로젝트로 생산된 LNG를 북극항로의 동부 노선인 북동항로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으로 운송함
- 쇄빙 LNG운반선인 블라디미르 루사노프(Vladimir Rusanov)호는 2주간 항해 끝에 일본 오기시마(Ohgishima) LNG터미널에 도착함

* 이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한 야말프로젝트 15척의 쇄빙 LNG운반선 중 6번째 아크7(Arc7)급 선박으로 길이 299m, 폭 50m, 높이 26.5m에 이름

그림. 일본으로 LNG를 운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루사노프 호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atek_postavil_pervuyu_partiyu_spg_v_yaponiyu_po_severnomu_morskому_puti.html

■ 야말LNG 운송은 처음으로 아크7급 LNG운반선을 통해 일본으로 LNG를 하역한 최초의 성공적인 사례임

- 이번 사례는 최초로 아크7급 쇠빙 LNG운반선을 통해 LNG를 하역한 성공적인 사례로 일본의 LNG 공급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 레브 페오도시에프(Lev Feodosiev) 노바텍 부회장은 “러시아는 LNG 프로젝트의 물류 체인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캄차카 LNG 환적 터미널의 가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경쟁력 있는 LNG 공급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노바텍은 러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기업으로 야말LNG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LNG 시장에 진출함

- 노바텍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가스 및 탄화수소 생산기업임. 2007년 야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제 LNG 시장에 진출함
- 노바텍은 주로 야말 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자원 매장지의 개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음. 이 지역은 러시아 가스 생산량의 80%,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 지역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www.novatek.ru/ru/press/releases/index.php?id_4=4001(검색일: 2020년 8월 10일 검색)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atek_postavil_pervuyu_partiyu_spg_v_yaponiyu_po_severnomu_morskому_puti.html(검색일: 2020년 7월 24일 검색)

톰스크 조선소, 북극자원 개발 지원 대규모 바지선 진수

■ 러시아 톰스크(Tomsk) 사무스키 조선소(Samussky Shipyard)는 북극해에서 운항이 가능한 바지선을 진수함

- 러시아 톰스크 사무스키 조선소는 북극해에서 항해하며, 작업이 가능한 바지선^{a)}을 진수함^{b)}
- 이 선박은 톰스크 주(Tomskaya oblast)에서 건조된 선박 중 최대 규모임. 사무스키 조선소는 8월 중순까지 동일한 규모의 바지선 한척을 추가로 진수할 예정임
- 2척의 대형 바지선은 진수 후 예인선인 마르샤 바실리에프스키(Marshal Vasilevskiy) 호에 견인되어 북극해로 이동할 것임

그림. 바지선 TK-2501



자료: <https://sudostroenie.info/novosti/30869.html>

■ 톰스크 주 최대 규모의 바지선은 북극의 석유 가스 개발을 지원할 것임

- 북극해의 유전, 가스전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과 터미널 건설 등으로 인한 북극해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톰스크 주는 관련 화물을 운송할 글로벌 프로젝트를 개발함. 이러한 발상에 따라 대규모 바지선 건조가 본격화됨
- 바지선 TK-2501은 비금속 건축 자재, 철근 콘크리트, 차량, 금속 구조물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바지선은 북극해 개발에 이용될 화물 운송을 지원할 것임
- 한편, 톰스크 주에 위치한 사무스키 조선소는 약 200여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재직하고 있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임. 지금까지 350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해온 러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조선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극지연구소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소·극지연구소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참고자료

- a) 바지선은 주로 강과 운하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바닥이 평평한 배임
- b) 진수(進水)란 새로 만든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함
- c)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tomskie_sudostroiteli_spustili_na_vodu_barzhu_dlya_ekspluatacii_v_zapolyare.html(2020년 7월 28일 검색)
- d) <https://sudostroenie.info/novosti/30869.html>(2020년 8월 10일 검색)
- e) <https://www.tvtomsk.ru/news/60840-samusskij-sudozavod-spustil-na-vodu-barzhu-prednaznachennuju-dlja-jekspluatacii-v-morjah-ledovitogo-okeana.html>(2020년 8월 10일 검색)

사할린~쿠릴 열도 운항선박 2호 건조 완공 임박

■ 사할린~쿠릴열도를 연결하는 쇄빙선단 급 선박 2호가 출항을 앞두고 있음^{a)b)}

- 극동지역의 운송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설정한 극동개발 목표 중에 하나였음.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Valery Limarenko)는 지난 7월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연결하는 선박 설계를 포함해서 운송 시스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음
- 2018년부터 PV-22 프로젝트의 두 개 쇄빙선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라이징플로트(Sakhalinlizingflot)에서 건조되기 시작했음. 사할린과 쿠릴열도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넵스키(Admiral Nevsky)는 올해 5월 건조에 착수했음
- 2019년에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연결하는 쇄빙선단 급 화물 여객선 파벨 레오노프(Pavel Leonov)가 건조되었으며, 두 번째 선박 건조작업이 2020년 12월에 끝날 예정임
- 넵스키 선박은 146명의 승객과 일반 화물, 컨테이너를 싣을 수 있고, 화물 크레인 하역 역량을 가지고 있음. 또한 쿠릴열도 정박지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운송되도록 설계되었음

그림. 넵스키 선박(좌) 및 파벨 레오노프 선박(우)



자료: <https://www.eastrussia.ru/news/vtoroe-sudno-dlya-sakhalina-i-kuril-spustili-na-vodu/>

■ PV-22 선박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넵스키 선단 개발이 착수됨^{c)d)}

- 사할린 지역 교통 및 도로 관리부 장관 발레리 스피첸코(Valery Spichenko)는 “조선업체들이 장비 공급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개발에 착수했다. 사할린 주민과 쿠릴 열도 주민들은 이 두 선박의 완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했음

- PV-22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박 ‘파벨 레오노프(Pavel Leonov)’는 2019년 3월에 출항했고 2호는 2019년 4월에 건조되었음
- PV-22 화물 및 여객선단은 작은 쇄빙선이지만 냉동된 8개의 컨테이너를 포함해 24개의 컨테이너(20피트)를 운반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었음. 정박지 하역에는 최대 30.5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크레인이 탑재되어 있음
- 넵스키 선박은 2021년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연결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사할린 주와 쿠릴열도 주민 및 지역 지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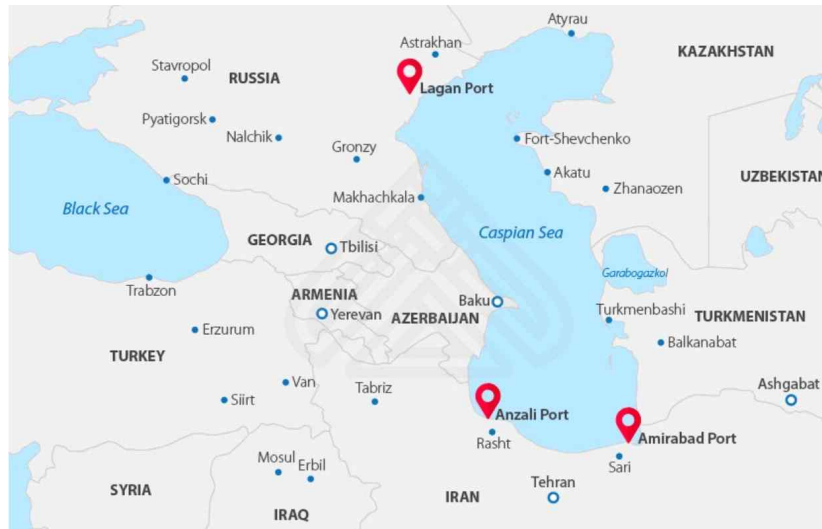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eastrussia.ru/news/vtoroe-sudno-dlya-sakhalina-i-kuril-spustili-na-vodu/> (2020. 8. 8. 검색)
- b) <https://tass.ru/v-strane/9032737> (2020. 8. 9. 검색)
- c) <https://zen.yandex.ru/media/tgd/pavel-leonov-vtoroe-sudno-dlia-sahalina-i-kuril-5f23c2580e45a90e1f381663> (2020.8 . 10. 검색)
- d) <https://regnum.ru/news/society/3030971.html> (2020. 8. 10. 검색)

러시아 라간, 연방계획으로 신항만 건설 추진

그림. 라간 항만



자료: Russia Briefing

■ 러시아가 칼미크 공화국에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임^{a)b)}

- 러시아 연방정부가 2020년 7월 29일자로 공포한 개정법안(No. 1980-p)에 따라 칼미크 공화국 라간 항만 건설 계획이 연방국토교통도로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음
- 라간항 건설사업은 연간 총 1,250만 톤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될 예정임
 - 곡물환적터미널(처리능력 500만 톤)
 - 액화별크화물 터미널(처리능력 50만 톤)
 - 컨테이너화물 터미널(처리능력 500만 톤)
 - 일반화물터널(처리능력 200만 톤)
- 라간항 수심 깊이를 13미터로 확보하기 위한 준설작업도 실시될 계획임
- 라간항 건설 첫 단계(처리능력 1,250만 톤)에 대한 의향서는 지난 2019년 7월 연방 해상·하천 교통청(Rosmorrechflot)가 승인했음
- 라간 항만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항만 건설과 관련 도로 및 철도 연결선을 구축하는데 16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키스피 해와 아조프 해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카스피 해 지역에서의 칼미크 공화국의 역할 확대 전망^{c)}

- 칼미크 공화국에 석유 및 가스 수출품 또는 중국의 교역품을 처리하기 위한 허브항만을 건설하는 아이디어는 최소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음
- 카스피 해 지역에 있는 불교 공화국인 칼미크 공화국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항만이 없어 같은 카스피 해 지역의 아스트라한 주와 다게스탄 공화국에 비해 발전이 더뎠음
- 특히, 분할 통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칼미크 공화국과 같이 단일민족 공화국이 외부와 많은 관계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임
- 칼미크 공화국은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항만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해줄 것을 오랜 기간 로비해 왔으며, 근래에 3가지 주요 변화가 생기면서 연방정부가 칼미크 공화국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신항만 프로젝트 추진에 힘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연방정부가 지역 함대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함대를 카스피 해에서 아조프 해로 이동시켰으며, 과거에 비해 연방정부는 카스피 해와 흑해 사이 운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음
- 따라서 칼미크 공화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카스피 해 쪽에 기지가 필요하게 된 러시아 해군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두 번째로, 아스트라한 항만은 기후변화 요인으로 인해 퇴적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준설작업이 더 자주 요구되고, 외 해역 또는 기존 운하를 통해 아조프 해로 환적하는 게 덜 안정적이게 되는 등 예전에 비해 항만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아졌음
- 이러한 문제는 러시아 해군이 카스피 해 지역의 주요 기지를 새로운 다게스탄 시설로 이전시키기로 한 결정에도 기여하였음
-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무슬림 공화국인 다게스탄과 다게스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칼미크 공화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음

■ 라간 신항만은 주요 환적항만으로 부상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이 강화될 전망이다 ^{d)e)}

- 현재 카스피 해에 있는 모든 러시아 항만의 물동량 처리능력은 750만 톤이며, 카스피 해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이 아님
- 이 때문에, 라간 신항 건설 계획은 러시아가 이란을 경유하여 인도와 페르시아 만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됨

- 또한, 라간항은 유럽행 중국의 화물 수출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특히 라간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연계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음
 - 1) 라간항에서 철도로 모스크바까지 연결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동쪽으로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중국까지 연계
 - 2) 라간항에서 카스피 해 동쪽으로 건너 카자흐스탄 악타우(Aqtau) 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항만과 연계
 - 3) 라간항에서 남서쪽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항과 연계하고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를 통해 흑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터키와 유럽과 연계
 - 4) 라간항에서 카스피해 남안의 이란 안잘리(Anzali) 항만(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거나 더 동쪽으로 아미르아바드(Amirabad) 항만과 연계한 후 국제 남북교통로(INSTC)를 통해 이란 남부 차바하르(Chabahar) 항만, 그다음 인도와 연계
- 중국은 연간 6,000억 달러 규모의 화물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이중 일부가 라간항을 통과하여 수출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중국 폴리그룹(POLY Group)과 중국에너지공학국제그룹(China Energy Engineering Group International)은 라간 신항만 건설 투자 계획을 확정함
- 라간 항만으로부터 항속 2시간 50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스트라한항만은 불가강*으로 향하는 주요 환적 항만으로 남을 전망이며, 라간항은 아스트라한항만에서 선적하기 힘든 대형 선박들을 수용하고, 아스트라한항만 대신 러시아 중심부로 가는 화물들을 환적시키는 기능을 할 전망이다

* 불가강은 3,500km 이상 되는 유럽의 가장 긴 강으로, 11개 도시와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인접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천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러시아 연방정부, No.1980-p (2020. 8. 12. 검색)
- b) <https://en.portnews.ru/news/299649/> (2020. 8. 12. 검색)
- c) <https://jamestown.org/program/kalmykia-seeks-to-be-a-player-on-the-caspian-with-new-port/> (2020.8.12. 검색)
- d)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new-russian-caspian-built-lagan-port-to-service-iran-india-china.html/> (2020. 8. 12. 검색)
- e) <https://dredgingandports.com/news/2020/new-sea-port-could-boost-cargo-turnover-on-the-caspian-sea/> (2020. 8. 12. 검색)

카작 항만, 올해 상반기에 300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

■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량은 300만 톤 이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냄

- 올해 상반기 항만을 통해 처리된 화물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화물자동차의 환적량은 53%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환적량은 1만 3,867개로 16% 증가함
-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상선은 악타우(Aktau, 카자흐스탄)~바쿠(Baky, 아제르바이잔) 루트를 통해 6,538개의 컨테이너를 포함한 114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음
- 올해 상반기 말, 내륙 수로의 수송량은 러시아로 수송된 9만 9,700 톤을 포함한 19만 1,500톤으로 2019년 대비 7.8%를 나타냄

그림. 카자흐스탄 항만



자료: <http://ostov.info/za-6-mesyacev-tekushhego-goda-cherez-morskie-porty-perevaleno-3-mln-tonn-gruzov/>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 해 루트를 통해 물류 역량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루트를 통한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새로운 해상 항로를 개통하고, 컨테이너 화물 역량 강화를 위해 악타우항만을 컨

테이너 화물의 허브항으로 만들고자함. 또한, 수출 화물의 일부를 쿠리크(Kuryk) 항만으로의 재배치함

- 이외에도 내륙 수로 항법 개발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여노문학과
(dksdmsgud6@naver.com)

참고자료

- a) <https://railnews.kz/ru/news/7687/> (검색일: 2020년 7월 28일)
- b) <http://ostov.info/za-6-mesyacev-tekushhego-goda-cherez-morskie-porty-perevaleno-3-mln-tonn-gruzov/> (검색일: 2020년 8월 5일)



주요 통계



표.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48 (+3.6%)	7.13 (+4.9%)	20.61	+4.1%
북극해	2.63 (-3.4%)	5.13(-6.4%)	7.76	-5.5%
발트해	9.68(-2.4%)	13.39(+6.2%)	23.6	+2.6%
아조프-흑해	7.92(+15.1%)	11.36 (+1.8%)	19.28	+6.6%
카스피해	0.25 (+41.7%)	0.29 (+3.0%)	0.54	+17.3%
합계	33.96(+4.2%)	37.3(+2.5%)	71.26	+3.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7118/>(검색일: 2020년 8월 10일)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aprel_vyros_na_3_7_do_280_13 mln_tonn.html(검색일: 2020년 8월 10일)

표.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70,286.90	65,970.90	977.20	887.00	271,264.00	66,857.90
광물 제품	1,171,075.50	21,265.40	23,702.10	55,389.00	1,194,777.60	76,654.5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098,071.80	19,753.80	100.9	—	1,098,172.70	19,753.8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067.20	49,619.60	481.40	543.50	3,548.70	50,163.10
가죽원료, 모피 제품	734.1	941.30	0.6	85.1	734.6	1,026.3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5,237.30	8,688.90	318.60	171.4	85,555.90	8,860.4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943.20	52,017.80	8.4	437.30	1,951.60	52,455.10
금속 및 금속 제품	28,404.50	57,749.70	93.5	654.00	28,498.00	58,403.70
기계류	6,482.10	286,525.50	519.40	10,415.20	7,001.50	296,940.70
기타	51,537.70	32,613.60	80,675.30	134.7	132,213.10	32,748.20
합계	2,716,840.30	595,146.50	106,877.40	68,717.20	2,823,717.70	663,863.7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10일)

표.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91,326	121,383.9	3,324	5,769.9	128	113.14	—	—	91,455	12,149.7	3,324	5,769.9
연어류	7,134	13,808.5	—	—	—	—	—	—	7,134	12,808.5	—	—
넙치	473	2,528.4	—	—	—	—	—	—	473	2,528.4	—	—
가자미	842	666	—	—	—	—	—	—	842	666	—	—
가자미류	1,976	1,700	—	—	—	—	—	—	1,976	1,700	—	—
청어	18,798	11,576.5	—	—	108	87.1	—	—	18,906	11,663.6	—	—
대구	4,818	13,556.5	—	—	—	—	—	—	4,818	13,556.5	—	—
명태	45,766	46,590.1	—	—	80	26.1	—	—	45,786	46,616	—	—
농어	39	109.6	—	—	—	—	—	—	39	109.6	—	—
간, 콘이 (어란)	5,762	23,030.4	—	—	—	—	—	—	5,762	23,030.4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99	1,319.7	—	—	—	—	—	—	699	1,319.7	—	—
생선 필렛, 어육	7,176	20,905.9	91	341.9	—	—	—	—	7,207	20,974.7	91	341.9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2	33	154	930.9	—	—	—	—	12	32.9	154	930.9
갑각류	6,824	97,969.2	16	126.2	—	—	—	—	6,824	97,969.2	16	126.2

계류	5,900	91,388.3	—	—	—	—	—	—	5,900	91,388.3	—	—
조개류	1,250	2,719	—	—	—	—	—	—	1,250	2,719	—	—
가리비	626	1,104.3	—	—	—	—	—	—	626	1,104.3	—	—
오징어류, 문어류	550	1,461.8	75	355.1	—	—	—	—	550	1,461.8	75	355.1
수산 무척추 동물	780	2,339.9	—	—	—	—	—	—	780	2,339.9	—	—
해삼류	65	136.4	—	—	—	—	—	—	65	136.9	—	—
성게류	714	2,202.9	—	—	—	—	—	—	714	2,202.9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8월 10일)